

# 지속가능한 E-WASTE 전략

김재범 (성균관대학교)

황연희(연세대학교)

Erin Cho (New School)

채승미 (성균관대학교)

# 목차

- E-waste 서론
- E-waste의 개념
- e-waste 관련 국제협약/법규
- E-waste 관련 한국전자산업의 대응
- E-waste 관련 한국전자기업들의 대응전략

# E-WASTE 서론

- 최근 10년간 지속가능성 연구는 기후 변화, 사막화, 자원 경영,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음.
-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복잡한 과제들은 산업계, 학계, 그리고 시민 사회 조직들로부터 각양각색의 사회적 대응을 양산해내고 있음.
- 그러나 사회적, 생태계적 문제들은 대부분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방면의 탐색이 필요함. 특정 학문 분야나 조직들은 구체적 원인과 해결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안을 실제 실행할 수 있을 지를 장담하기 어려움(Stock and Burton, 2011).

# E-WASTE 서론

-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생태학적 연구들과 사회적 요소들을 결합하고,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을 포괄하여 실제 세계의 지속적인 유지 및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음(Luks and Siebenhüner).
- '지속가능성'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심 영역을 탐색하는 일이자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, 이상, 상위의 요소 및 복합적 학문 영역의 구성이론들을 동시에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임.
- 그러므로 모든 범주의 지속가능성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의 통합과 관련됨.
- 따라서 다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

# E-WASTE 개념

- E-waste는 electronic waste(전자쓰레기)의 약자로 전자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지칭함.
-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활양식은 결국 e-waste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였음.
- 오늘날에는 가전제품의 소형화로 인하여 1인당 가전제품 보유량이 최소한 수 배에 이르고 있음.
- 또한 e-waste문제는 다른 폐기물 문제와 달리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.

# E-WASTE 관련 국제협약/법규

- E-waste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합의는 바젤 협약임.
- 바젤 협약은 1989년 3월 유엔에서 체결, 1992년 5월 5일 정식 발효되었으며, 전문과 본문 29개조, 6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.
- 이 협약은 지구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시, 교역국과 경유 국에도 사전 통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# E-WASTE 관련 국제협약/법규

- 바젤 협약이 e-waste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2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MPPI(Mobile Phone Partnership Initiative)가 체결되면서 부터임.
- CDMA 및 GSM을 거쳐 IMT-2000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은 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 통신기기 사용량 급증이라는 결과를 가져옴.
- 이러한 2000년대 초반의 상황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MPPI로 볼 수 있음.
- MPPI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하는 12개의 회사들이 호응하였고 유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잇따라 참여하였음.
- MPPI의 목적은 수명이 다한 휴대폰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임.
- 확실한 제품책임제를 달성하고, 소비자의 행태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며, 최선의 재사용, 자원회수, 개조, 재활용 및 폐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 E-WASTE 관련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

-우리나라는 “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”을 기반으로 2008년 1월부터,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음.

-이 제도는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,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, 처리에 관한 사후관리 문제까지 제품의 전생애 걸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.

-이 법은 주로 백색가전 위주의 정책임. 그러나, e-waste 문제의 심각성이 점증함에 따라 2013년 7월 16일 동 법이 개정되었음.

-이 개정법은 규제 항목을 10개에서 27개로 늘리는 등 자연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# E-WASTE 관련 한국전자기업들의 대응전략

-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주요 전자기업들의 e-waste 관련 대응전략을 살펴보려 함.
- 특히 삼성전자의 사례를 살펴보고, LG전자의 사례를 살펴본 후, 양사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려 함.

# Q&A